“〈한마음요전〉 종교교육 교재로 확장 모색을”

김은영 교수,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한마음선원 기록 담은 ‘요전’
‘합리적 교육 과정 모형’ 분석
과정-주체, 주인공 되는 순환
보편성 부족…활용법 모색해야
전자책 개선, 필사집 등 제언

안양=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선사(1927~2012)의 행장, 법어 등이 수록된 〈한마음요전〉의 종교교육 교재로써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산하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7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종교성 교육을 위한 교재로써 〈한마음요전〉 분석’ 을 발표한 김은영 동국대 불교학술원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는 〈한마음요전〉(이하 〈요전〉)의 종교교육 교재로써 활용방안을 처음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요전〉의 내용과 체제를 미국의 교육학자 랠프 타일러(R. W. Tyler)의 ‘합리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목표중심 교육과정 모형)’ 으로 분석해 종교교육 교재로써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타일러 모형에 따라 〈요전〉을 △교육목적과 목표 △학습경험 제공 △학습경험 조직 △평가 등의 구조로 분석한 김 교수는 순환적 교육과정, 연기적 교육과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요전〉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디서 시작해도 시작과 끝이 연결돼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와 동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역시 스스로가 깨달음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교육관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김 교수는 “〈요전〉 전체가 학습자로서 대행 선사의 학습경험인 과거 내용이면서, 동시에 교수로서의 가르침을 정리한 현재의 내용이다. 이 책을 읽을 잠재적 학습자들을 통해 학습경험과 학습조직은 미래로 연결돼 있다”며 “교육구조의 과정에서 모두가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순환이 발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에서 연구논문을 발표한 김은영 교수.

이어 “대행 선사가 〈요전〉을 통해 밝히고자 한 가르침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은 나이면서 중생이고 부처이기도 하다는 것”이라며 “그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요전〉의 모든 내용들이 학습경험과 학습조직이 돼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요전〉이 보편적 종교성을 담보한 종교교육 교재로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교재로써의 재구성 등 새로운 활용과 확산을 모색해야 함을 요청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교재로써 〈요전〉의 활용방안에 대해 △〈요전〉 전자책 개선 △한마음선원 프로그램에서의 활용 △〈요전〉 필사본 출판 등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마음선원 누리집과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에는 〈요전〉 전자책이 게시돼 있지 않다. 반면 주요 서점의 전자책 채널에서는 판매되는데, 리뷰가 매우 긍정적”이라며 “확산의 측면에서 한마음선원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전〉을 볼 수 있게 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선원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인들을 위해 〈요전〉 내용 중 보편적 종교성이 드러나는 문구를 발췌한 필사본 출판물도 필요하다”며 “필사를 통해 〈요전〉의 본문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여수 용월사 불교문화연구소장 법우 스님은 ‘일본 정토종 종조 호넨(法然)의 보리심관(菩提心觀)’ 을 통해 일본 정토종조 호넨(1133~1212)이 보여준 다소 도발적인 보리심에 대한 관점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법우 스님은 호넨의 〈선택본원염불집〉(이하 선택집) 등 저서를 근간해 그의 보리심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호넨은 보리심은 불도(佛道)의 전제로 보지 않고 ‘정토에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 즉, 원생심(願生心)을 정토종의 보리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우 스님은 “천태종 승려로서 제종의 교학과 수행을 섭렵했던 호넨이 정토불교로 회심한 것은 스스로가 계 · 정 · 혜를 닦아 불도를 이룰 수 없는 우치범부임을 자각하면서부터”라면서 “보리심은 범부에게는 실로 내기 어려운 마음이다. 칭명염불을 통한 타력왕생의 길은 보리심을 내기 어려운 범부에게도 열린 불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울산지원장 혜안 스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불사’ 를 주제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발표를 맡아주신 법우 스님과 김은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한마음선원에서 〈요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많이 배웠다 해서 아상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 해서 고정관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를 듣고 지식이 지혜로 변해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8월 25일까지 작품 접수

조계종이 주최하는 ‘제31회 불교언론문화상 공모전’ 이 오는 8월 23일까지 각 분야별 작품을 접수한다. 공모부문은 방송과 언론보도, 뉴미디어, 특별부분, 언론인이다. 각 분야마다 연기 · 중도 · 자비 · 생명 · 평화 등 불교적 관점을 담아야 하며, 언론인의 경우 불교 언론 분야에서 공로가 있어야 한다.

불교언론인상을 제외한 모든 부문은 응모 신청서와 더불어 부문별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영상은 용량 10GB이하, 라디오는 오디오 확장자 mp3 또는 wav, 신문은 전면기사 출력 3부와 모든 파일의 PDF 합본 1개를 첨부해야 한다. 응모사유서와 작품설명서는 자유양식 3장 내외이며 선택사항이다.

모든 부문의 경쟁을 거쳐 선정되는 대상작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부문별 수상작은 상패와 함께 상금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특별상 100만원이 주어지며, 언론인상은 300만원이다. **윤호섭 기자**

‘가수계제도’ 출가 문호 넓힐까

동국대 전자불전硏, 7월 27일 학술대회

단일계단 이전 사용한 ‘가수계’
출가 문화 확대 방안으로 논의

현재 한국불교 화두 중 하나는 ‘출가자 감소’ 다. 조계종은 10년 전부터 다양한 출가진흥책을 내놨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가 문호를 넓히기 위한 ‘가수계제도’ 복원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는 7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가, 그 문호를 크게 열다-가수계제도의 현대적 복원과 모색’ 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일반적으로 출가자가 수계를 받기 위해서는 3사(전계사, 교수사, 갈마사)와 7증사를 구족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 전에는 수계산림을 정식으로 열어서 계를 내릴 수 없을 때 일정한 대중의 수가 갖추어지면 계를 받게 했고 이를 ‘가수계’ 라고 했다. 수계를 하지 않으면 승단의 일원이 될 수 없어서 약식으로 계를 설했던 것이다.

‘가수계’ 는 오늘날에는 낯선 개념이지만, 조계종에서 단일계단 제도가 자리 잡기 전 많이 쓰이던 개념이었다. 실제 20~30년 전 한국 사찰이나 총림에서는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가수계제도의 현대적 복원을 위해 율장과 이웃나라 수계제도 등을 살펴보고자 기획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가수계 수용의 모색과 발전방향(승범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율장의 수계법에 근거한 가수계 적절성 논의(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근현대 대만불교의 출가와 수계(경완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선시대 〈작법귀감〉의 수계의식(강향숙, 인도철학불교학연구소)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문광 스님(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기룡(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이진영(동국역경원), 태경 스님(조계종 의제실무위원)이 참여한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장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출가자가 급감하는 시기에 가수계제도를 통해서 짧은 기간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차후에 그들이 정식 출가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출가 경험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잠깐 선택했던 출가 때문에 세속에서의 삶이 단절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이 제도를 검토해보는 의미”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중앙종회와 교육원, 김일엽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로 등록한 안산 화림선원.

심택사 · 화림선원 · 봉곡사, 녹색사찰 동참

7월 18일 불교환경연대와 협약

2018년부터 불교환경연대가 1회 용품 사용 금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녹색사찰에 3개 사찰이 추가로 동참했다.

서울 심택사 · 안산 화림선원 · 김천 봉곡사는 7월 18일 각각 경내에서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맺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각 사찰에 녹색사찰 의미와 실천방법을 설명하고, 녹색사찰 명패를 전달했다.

협약식에서 심택사 주지 효탄 스님은 “요즘 뉴스를 보며 기후위기를 보다 크게 실감해 녹색사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이 든다.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화림선원 주지 효탄 스님은 “죽을 때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욕지족 해야 한다”며 “이제는 녹색사찰이 됐으니 물질 절약을 더욱 철저히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곡사 주지 현탁 스님은 “욕심 부리며 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과 거리가 멀다”며 “환경문제가 심각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녹색사찰에 참여했다”고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